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의 핵이고, 복음의 핵이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롬1:4).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구원은 완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세상의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저주는 안 끝난다. 저주 가운데 있는 생명이 새 생명, 새 축복이 될 때 그게 완전한 구원이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미래도 없다.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무슨 미래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19절). 그래서 부활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다. 재창조의 능력이다. 연약한가? 실패했는가? 절망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내 인생에 새 역사(재창조)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25의 응답이다.

1. 어떻게 이 부활의 축복과 응답을 내 인생 모든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

1) 부활의 증거부터 잡으라. 우리는 거짓말을 믿고,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①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그 분이 살아서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에 내 인생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분이 죽고 끝났다면 아무 것도 일어날 것이 없다. 그 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 인생이 기적이 될 수 있고, 신비(비밀)가 되고,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②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는가? 어떤 문제와 절망의 시간이 다시 와도 상관없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신다고 했고(렘33:3), 새 일을 행한다고 했고(사43:18-19),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롬8:28).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 세가지가 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증거 세가지가 있다.

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3-4절). 수천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 증거이다.

그가 어떻게 오시고(창3:15, 사7:14), 어디로 오시고(미가5:2), 누구의 후손을 통해 오시고(창49:10, 사11:1), 어떻게 죽으시고(사53:5-6),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시16:10) 정확하게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다.

② 이 부활을 목격하거나 믿은 사람들이 체험한 증거이다(5-8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계바)와 다른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했다. 너무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어 세상을 살리게 하신 것이다.

맨 나중에 만삭되자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고, 마귀 심부름을 한 것이다. 이 바울을 바꾸어 모든 왕들과 이방인 살리는 전도자로 쓰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다.

③ 더 중요한 증거는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증거이다(11절)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부활을 보지도 못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 은혜에서 온 기적이다. 하나님은 계속 내 인생 속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빌1:6).

3)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 보라.

수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놓고 다 잊고 산다. 문제 오면 오히려 원망, 절망까지 한다(광야 이스라엘).

① 예배 할 때, 기도할 때 평상시에 감사를 회복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시50:23).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하나님께 감사했다(요6:11)

② 작은 것부터 찾아내 기억하고 감사 춘련해라. 특히 모든 문제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57절)

거대한 땀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틈에서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작은 감사와 믿음이 모여질 때이다.

2.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속 일하실 수 밖에 없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다(망대)

1) 망대의 세가지 역할이 있다. 세 종류의 망대이다.

① 나를 지키고, 내 가정과 백성을 지키는 역할이다(파수꾼의 망대, 기도 망대). 군대로 말하면 초소이다.

다윗은 왕이 되어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용사들이 드는 일천 방패를 두었다고 했다(아가4:4)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약점, 숨은 상처, 어려움으로 공격해온다. 누군가는 싸울 준비를 하고, 지키는 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파수꾼을 세울 거라고 했다(사62:6)

②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다(안테나의 망대, 전도 망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자들을 제일 먼저 보고, 전달해주는 일을 망대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곳곳마다 이런 망대를 세우고,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준 것이다.

③ 평상시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빛을 발하는 것이다(플랫폼의 망대, 선교 망대)

아무 것도 없는 마가 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그 텁박 속에서도 전 세계로 간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마28:18-20).

그들이 세상을 치유하고(막16:14-20), 땅끝까지 가서 중인으로 선 것이다(행1:8). 그들에게로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도 이것이다. 플랫폼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땅 미국에서도 계속 여러 다민족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이 세가지 망대 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이다(3,9,3의 축복).

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함께 계신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고 했다(막16:18-20). 온 땅에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다(마24장). 그러나 우리가 보좌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표적이 될 것이다.

② 어떤 표적인가? 먼저 내 자신이 계속 힘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창1:27, 2:7, 2:18의 응답과 축복).

그 응답과 축복은 시공간 초월하고,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이기는 빛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온다.

그래서 무엇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다(55-58절)

③ 이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는 3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무너지는 현장, 교회, 후대)

결론-부활하여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회복하라. 부활 때문에 절망은 없다. 25의 응답만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만 있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한다.